WEEKLY IBK 경제브리프
(530호) 2017-12-12
IBK경제연구소

차기 연준 의장 제롬 파월, 그는 누구인가?

□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제롬 파월(現 연준 이사)을 지명(11.2일)

※ '18.2월부터 4년동안 연준 의장으로 활동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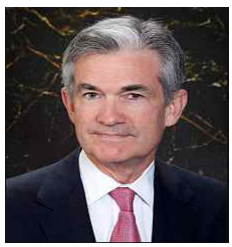
○ 파월('53년생)은 통화정책은 중도, 금융규제는 온건(완화), 정치 성향은 공화당임

- '12년 버냉키 의장 시절부터 연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옐런 부의장 등과 함께 3차 양적완화를 추진한 인물

○ 파월 의장 지명에는 親월가 성향인 파월이 안정된 리더십으로 ①금융규제를 완화하고 ②저금리를 유지해 경기 회복세를 이어감으로써 '20년 대통령 재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트럼프의 속내가 반영

- 마지막 3명의 후보 중 공화당에서는 테일러 교수를 선호했으나 트럼프 입장에서 매파 성향인 테일러는 부담스럽고 옐런 의장은 금융규제 완화에 반대했기 때문

□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특이점은 세가지!



○ 非유대인 - 非경제학자 출신 연준 의장

- 폴 볼커 이후 약 40년간 이어져온 유대인 - 경제학자의 관행을 깸

○ 재산 약 6천만달러의 역대 가장 부유한 연준 의장

○ 연준 이사 재직 당시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직원들과 격의 없이 토론하는 등 소탈하고 포용력이 넓은 인물로 평가

□ 비경제학자 출신이나 법조계, 금융계, 공직에서 근무하며 정부정책과 실물경제를 두루 섭렵

○ 프린스턴대 정치학 학사 - 조지타운대 로스쿨 졸업

○ 로펌('79~'84년, Davis Polk & Wardwell) - 투자은행('84~'90년, Dillon, Read & Co) - 재무부('90~'93년, 국내금융 담당 차관) - 사모펀드 투자회사('97~'05년, The Carlyle Group) 근무

○ '12년부터 연준 이사로 재직

□ 월가 변호사 출신인 파월은 통화정책보다 금융규제 베테랑으로 트럼프가 추진 중인 금융규제 완화에 큰 힘이 될 것

※ 파월은 상원 청문회(11.28일)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되어 온 금융규제를 완화하여 금융이 실물경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트럼프가 원하는 금융선택법(Financial Choice Act)*의 주요 내용은 ①볼커룰(대형은행 자기자본거래 금지) 완화 ②금융소비자보호국과 금융안정감독위원회의 권한 축소 등

* 도드프랭크법 발효('10.7월) → '금융선택법'이 공화당 의원에 의해 발의('16.9월) → 트럼프 대통령이 도드프랭크법 검토 행정명령에 서명('17.2월) → '금융선택법' 하원 통과('17.6월), 상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남겨놓은 상황

○ 연준은 금융소비자보호국 예산과 금융안정감독위원회의 규정 관리 권한을 갖고 있어, 금융선택법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권한 축소가 예상됨

□ 반면, 2018년에는 FOMC 위원이 과반수 이상 교체될 예정

○ 순환직으로 매년 교체되는 4명 지역 연은 총재 외에도 현재 공석인 부의장과 이사 2명, 지역 연은 총재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뉴욕 연은 총재 선임이 남아있음

< FOMC 위원 변화 >

		이사회						지역 연은 총재				
		의장	부의장	위원				고정	순환			
2017년 (11월)	이름	재닛 옐런	공석	레이얼 브레이너드	랜달 퀄스	제롬 파월	공석 3명	윌리엄 더들리 (뉴욕)	찰스 에반스 (시카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닐 카스카리 (미네아폴리스)
	성향	중도	–	비둘기	매	중도	–	비둘기	비둘기	매	중도	비둘기
2018년	이름	제롬 파월	미정	레이얼 브레이너드	랜달 퀄스	마빈 굿프렌드*	공석 2명	미정 (뉴욕)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성향	중도	–	비둘기	매	–		–	매	–	–	중도

* 마빈 굿프렌드는 카네기멜론대 교수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옹호한 바 있으며, 현재 상원 인준 대기 중임
** 토마스 바킨은 '18.1월 임명 예정, 주 : 음영은 교체 멤버, 자료 : Fed

□ 12월 FOMC에서 금리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향후 파월은 신중하고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

* 선물시장에 반영된 12월 금리인상 확률 : 98.3%(12.6일 기준, 블룸버그)

○ 당초 9월 FOMC회의에서 연준이 전망한 '18년 금리인상 횟수는 3회였으나, 글로벌 IB(평균)는 2~3회 인상에 그칠 것으로 전망

- 파월은 청문회(11.28일)에서 최근 저인플레이션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늦추어질 수 있다고 언급

(작성자 : 경제금융팀 대리 송주경 jk24031@ibk.co.kr / ☎02-729-7385)